

테마칼럼

이성제

정세리

김철수

문화향기

‘문화재 의병’ 일어서다



조현종

한말 의병운동의 본산이며, 항일독립과 민주화의 준령인 이곳에서 21세기를 지향하는 문화재 의병이 일어났다

지난 7일 나는 무등산사에서 펼쳐진 한 행사를 방문하였다. 그곳에는 전국각지에서 몰려든 문화재 지킴이들이 지난 1년 동안 활동한 각종 성과물들을 옮겨와 입구는 흡사 전시회장을 방불케 했다. 문화재청과 광주대동문화재단이 마련한 이 행사는 전국에서 자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문화재 지킴이들이 한데 모여 지역간 교류와 소통을 이루고 그동안의 성과와 과제를 공유하며 새로운 운동모형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2005년부터 매년 전국을 돌며 열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올해가 3회째이며 한 사람이 적어도 하나의 문화재를 가꾸고 지킨다는, ‘문화재 1지킴이’의 민관협력운동이다. 문화재를 가꾸는 아름다운 손길, 우리가 풀려줄 또 하나의

‘1문화재 1지킴이’운동

유산이라는 주제의 이번 광주대회 역시 서울과 강원, 영남, 호서, 호남 등 전국에서 350여명이 참여하여 2일간의 열띤 보고회와 현장활동으로 뜨거운 문화재 보호의지를 과시하였다.

조상들의 삶의 예지와 숨결이 깃든 문화유산을 생활속에서 지속적으로 찾고, 가꾸고, 지켜 나가는 일에서 즐거움을 얻자는 활동선서와 함께 문화재가 모두에게 가깝고 친근해지도록 하며, 풀려받은 그대로 후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잘 지키고, 문화재사랑을 확산시켜 문화재를 가꾸는 공동체문화를 만드는 데 앞장서자고 다짐했다. 이들의 문화재에 대한 세련된 지식이나 성과물의 완성도를 거론하기에 앞서 이들의 진정한 모습은 너무나 감동적이며 차분하게 읽어 가던 그 음성들을 잊을 수가 없다.

여기에서 조국이 위난에 처했을 때 분명히 일어서 초개같이 복수를 단진 우리 역사속의 의병의 모습을 연상하는 것은 비약이 아니다. 세상이 많이 변했다고들 하지만, 조상의 숨결이 깃든 우리의 문화재가 파헤쳐져 훼손되거나 경관과 환경이 위험한 지경에 이른 오늘날의 상황이 이들로 하여금 전국에서 광주로 향하게 하였으리라! 유구한 역사속에서 일찍이 농업공동체를 완성하고, 충절과 절의를 존중하였 뿐 아니라 한말 의병운동의 본산이며, 항일독립과 민주화의 준령인 이곳에서 21세기를 지향하는 문화재 의병이 일어선 것이다.

문화재는 그것이 유형이든 무형이든 사람이 만든 생생한 역사의 산물이다. 그러기에 문화재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고리가 된다. 인간은 역사를 통해서 과거를 기억하며 내일을 꿈꾸고 새로운 희망을 설계한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찾아 나설 문화재가 없는 도시나 국가의 공허함은 그래서 더욱 비참하다. 유럽은 물론이러나와 아시아의 여러 나라, 가까이 일본과 중국에서까지 치열하게 추진되고 있는 고대문화재의 복원사업은 과거와 현재가 어우러진 도시의 역사성 회복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 지금 세계는 역사가 살아 숨쉬는 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역사속 의병 모습 연상

나는 이 아름다운 문화재 의병들의 장엄한 출정식 보면서 그러나 이들이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다시는 일어나서 양기를 희망한다. 버려진 이 없으면 좁은 이 또한 필요 없듯이 우리 모두가 스스로 다듬고 가꾸어서 누가 무엇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 그래서 누구나 조국산하 어디에 가건 역사속에 남아 오늘에 전하는 우리의 문화재가 자연환경과 어울려 올바르게 서 있는 그 날을 기대한다.

<국립광주박물관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전략 재점검하라

2012년 세계박람회 여수 유치에 비상이 걸렸다. 아프리카 북서쪽 끝에 위치한 모로코가 국왕의 전방위 외교전에 힘입어 강력한 경쟁 상대로 부상하고 있다. 우리의 세계박람회 유치전략을 재점검해야 할 상황이다.

해양수산부와 여수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는 모로코의 ‘황제외교’에 긴장하고 있다. 국왕이 직접 세계박람회기구(BIE) 회원국 중 16개 왕국의 국왕을 상대로 유치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모로코가 취약한 재정여건상 2조원이 넘는 세계박람회 개최 비용을 감당할 수 없을 경우 국왕 개인재산까지 털 것이라는 소문도 있다.

모로코는 결코 가볍게 볼 상대가 아니다. 모로코는 세계박람회를 유치하면 아프리카는 물론 이슬람권에서 최초라는 점을 내세워 아프리카 및 이슬람권 국가들을 집중 공략하고 있다. 세계적 영향자인 탕헤르는 인지도가 매우 높아 관람객 동원에도 유리하다.

모로코의 상승세로 우리의 유치전에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아프리카와 중동 국가들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특히 모로코는 오만, 카타르, 요르단 등 왕국들과 오랜기간 끈끈한 유대관계를 맺어와 만만치 않은 저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한다.

유럽 등 선진국이 가세할 가능성도 있다. 모로코는 선진국들을 상대로 가난한 나라가 세계박람회를 개최하면 민주주의 강화와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아프리카 및 이슬람권 국가의 도움에다 동정심 유발할 수 없을 경우 국왕 개인재산까지 털 것이라는 소문도 있다.

정부는 경제심을 한층 높여야 한다. 모로코가 국가경제 규모나 개최능력, 안전문제 등에서 우리나라와 비교할 수 없다고 하지만 낙관할 상황은 절대 아니다. 치밀한 유치전략을 바탕으로 정부와 기업, 국민 모두가 전방위 외교전에 나서야 할 것이다.

공공기관 지방대생 채용 확대 꼭 지켜야

올 하반기부터 공공기관의 지방대생 채용이 확대된다고 한다. 지방대생의 취업이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보다 어려운 현실에서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기획예산처가 24일 발표한 ‘공공기관 채용방식 개선 추진계획안’은 지방대 출신의 공기업 입사 봉쇄를 막고, 분사 이전 예정 공공기관의 이전권역 지방대생 채용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기업 입사시험 응시 기회를 늘리고 사회형평적 채용을 늘린다는 것이다. 비록 늦은 감이 있지만 정부가 지방대생 취업난 해소에 적극 나선 점은 높이 평가된다.

지방대 출신의 취업난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오죽했으면 지방대생은 ‘졸업이 곧 실업이다’는 자조적인 말까지 나왔을까. 이는 취업시장에서의 지방대생 차별이 가장 큰 이유다.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응시 기회마저 주어지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지방대생 취업난은 우수 인재의 수도 권 쏠림을 부추기고 있다. 취직이 잘 되면 먼 곳이 많은 돈을 들이면서까지 수도권 대학에 진학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지방대생의 취업 차별은 근절돼야 한다.

공공기관의 지방대생 취업 확대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특히 당장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분사 이전 예정지역 출신에 대한 채용 확대는 권고사항이 아니라 의무화해야 한다. 권고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경영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준다고 하지만 이런 조치만으로는 응두사미가 될 공산이 크다. 의무공공과 같은 보다 강제적인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지방대 스스로도 개혁을 통해 우수인재를 불어올 수 있도록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상징성을 띤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 결국 지방대 스스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1976년 6월 27일, 승객 및 승무원 269명이 탑승한 파리발 텔아비브행 에어프랑스(Air France) 항공사 여객기가 7명의 중무장한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에 의해 우간다 엔테베 공항으로 납치됐다. 프랑스가 이스라엘에 미라주(Mirage) 전투기와 원자료를 판매한 보복이었다. 납치범들은 수감 중인 일본 적군파(赤軍派) 고조 오카모토를 비롯한 53명의 테러범 석방과 현금 500만 달러를 요구했다.

이스라엘은 그러나 ‘눈에는 눈’(An Eye For An Eye)이라는 대 테러리즘 강경정책에 의거, 인질 구출작전을 감행한다. 작전명은 ‘썬더볼트’(Thunderbolt-번개). 정보기관 모사드 산하 ‘사렛트 매트칼’(Sayeret Matkal)이 주도적인 임무를 맡았다. C-130 허큘러스(Hercules) 4대와 구호용 보인 707 2대에 편승한 구출팀은 무려 4천km를 저공비행, 케냐의 나이로비에 중간 기착했다. 이어 7월3일 엔테베에 착륙한 특공대는 유대인들만이 알 수 있는 히브리어로 ‘앞드러’라

고 소리친 후 납치범들을 사살한다. 총격전은 불과 1분45초. ‘사렛트 매트칼’은 우간다 공군의 추격을 막기 위해 11대의 미그기를 파괴한 후 당초 계획대로 53분 만에 인질들을 수송기에 싣고 텔아비브로 떠났다. 작전 중 4명의 민간인과 특공대장 조나단 나타냐후(Jonathan Netanyahu) 중령이 목숨을 잃었을 뿐이다. 엔테베 공항의 구조와

여류 상황을 정확히 꿰뚫은 정보 수집의 결과였다. 역사상 최장 원거리 구출로 기록된 이 작전은 커크 더글라스(Kirk Douglas) 등이 출연, 영화(Victory at Entebbe, 1976)로도 제작됐다.

탈레반 무장세력에 피랍된 한국인 봉사단원 사건을 보면서 30년 전 엔테베 작전을 생각한다. 정부는 “한국의 동의없는 구출 작전은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우리 특수부대가 아프가니스탄에 잠입, 인질들을 무사히 빼내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은 지나친 꿈일까. /정기태 사회1부장 meonsan@kwangju.co.kr

엔테베 작전



기고



박정필

지난해 한국사회에서 발생한 교통사망자는 무려 6천374명이고 부상자는 34만1355명이었다. 누구나 엄청난 사상자 숫자에 어안이 빙빙하고 ‘거짓말 같은 사실’에 경악한다. 흔히들 과거에는 ‘인명재천’이라 했는데 오늘날은 ‘인명재륜(人命在輪)’이라는 병형신조어를 탄생시켰다.

우리 경제가 짧은 기간에 압축성장해 삶의 질은 향상됐으나 이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찮다. 알다시피 인간생명은 유한하고 희소성이 있다. 수 억대 재산가도 내 한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루아침에 성실한 가장이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되면 그 가정

고, 어느 나라 못지 않게 가는 곳마다 교통안전 시설물이 즐비하다. 게다가 교통단속은 연중행사다. 하지만 여전히 교통사고는 줄을 잇는다. 특히 농촌지역의 나이트 어러 신들은 사회규범이나 생활규범이 굳어져 있어 별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자식이 사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지만 안전모를 미착용하고 음주운전이 고질화 돼 있다. 또 적발되면 억지와 생떼를 쓰고 과잉단속 운운하기 일쑤다. 공동체 삶에서 법질서를 안 지키면 남에게 불행과 피해를 주고, 자신을 포함해 타인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인식이 부족하다.

교통단속, 농촌이라고 봐 줄 수야

의 행복은 송두리째 뺏혀지고 만다. 예고 없이 날아 든 죽음의 비보에 온가족은 여간이 무너질 것이다. 실은 살인사건과 교통사망사고는 인간의 존엄하고 최고가치인 생명을 소멸시켜 버린다는 점에 동일하다. 고의든 과실이든 그 유가족의 슬픔은 마찬가지로. 한순간 사랑하는 가족구성원을 잃었을 때 그 망자를 사무치게 그리워하는 심정은 오죽하겠는가. 인제부터가 교통사망사고를 야기해도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고 합리적인 보편 구속에 안되고 쉽게 해결된다는 그릇된 사고방식이 생명경시 풍조를 부채질하고 있다.

경찰이 온갖 아이디어를 짜내 교통사망사고 예방활동을 감도 높게 추진하고 있다. 35년도 안되는 기간이다. 그런데 왜 36년도에 예서 표현하려고 하는 것인가. 또 을사보호조약이라는 표현도 많이 쓴

신호등 없는 교차로 사고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양보가 없는 탓이다. 자신이 먼저 가겠다는 이기와 독선이 원인이다. 이제 보릿고개가 지났고 좀 경제적인 여유가 생겼으니 마음의 여유도 생길 때가 되지 않았을까. 얼마 전 순창군부 중 13번 국도 사거리에서 빨강신호가 들어와 정지하는데 뒤따라온 승용차가 신호를 무시하고 추월해 나갔다. 경찰이 바로 앞에 있어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어디 그런인가 교통법규 위반자에 스티커를 발부하면 괜히 시비를 걸고 말꼬리를 잡으며 심지어 욕설도 퍼붓는다. 사고 예방차원에서 교통 단속하다보면 ‘농촌지역인데 단속을 하느냐’며 반발하기 십상이다. 하지만 도·농 차별 없이 법을 평등하게 적용해야지 농촌이라고 봐줄 수 있겠는가. <영양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시인>

‘일제 치하 36년’이라는 표현 이제는 쓰지 말자

8·15 광복절만 되면 일제 치하 36년이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가 많다.

엄밀하게 따져보면 우리나라는 지난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로 나라를 빼앗겨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았으니 정확하게 34년 11개월 14일만 일제 치하에 있었던 것이다. 35년도 안되는 기간이다. 그런데 왜 36년도에 예서 표현하려고 하는 것인가. 또 을사보호조약이라는 표현도 많이 쓴

다. 하지만 이는 당시 일본제국주의 입장에서 우리를 보호한다는 의미로 명명된 명칭이다. 따라서 ‘을사조약’이라고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

이외 나라를 함쳤다는 의미의 ‘한일합방’도 경술년에 발생한 우리나라의 치욕적인 일인 만큼 ‘경술국치’로 부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유지호·목포시 축복동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 지급합니다.

의료칼럼



김철수

‘남자는 허리가 보배다.’라는 말이 있듯이 남자들에게는 부부생활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허리 건강이다.

허리 통증을 호소하면 남자들은 흡사 간밤에 무리한 섹스가 원인인지 묻곤 한다.

하지만, 실제로 섹스가 허리를 아프게 한 경우는 거의 없으며 심각한 척추 질환이 아니라면 허리가 아픈 환자에게 섹스는 오히려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된다.

사전에 워밍업을 충분히 하고 허리에 무리를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면 허리 근육을 튼튼하게 해주는 효과까지 기대

허리 디스크가 심하지 않을 경우 허리를 적당히 뒤로 젖히는 자세는 척추의 후궁인대(뒤쪽 인대)가 탈출된 디스크를 안으로 밀어주므로 탈출된 디스크가 원래 위치로 회복하는데 도움을 준다.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급성 허리 통증이 있을 경우에는 일정기간 관계를 중단하고 안정을 취하는 것이 좋다. 보통 2~3일 정도 휴식을 취하고 난 후 서서히 근육 강화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또한, 척추 수술을 받은 경우라면 수술의 종류에 따라서 섹스할 수 있는 시기가 다르며 허리 디스크로 미세현미경

적당한 부부관계 디스크에 도움

할 수 있다. 만성 허리 통증이 있는 환자는 느리고 부드러운 섹스를 통해 오히려 통증을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우리 신경계는 접촉 감각의 신경이 통증 감각의 신경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에 섹스와 같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접촉은 통증을 잊게 하기 때문이며, 오르가슴은 가장 효과적인 근육이완제로 작용해 허리 통증을 풀어주게 된다.

섹스는 여성에게서는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분비를 촉진시켜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효과를 나타내며, 남성들에게는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분비를 촉진시켜 뼈와 근육의 발달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섹스중의 ‘허리 신전운동’(허리를 뒤로 젖히는 운동)과 ‘골반 들기 운동’ 등은 복근과 척추의 근육을 단련시켜 허리를 튼튼하게 만들어 준다. <광주우리병원 원장>

수술을 시행한 경우는 무리 없이 1~2km를 걸을 수 있을 때 대개 3주 후면 섹스가 가능하며, 척추 유합술과 같은 큰 척추 수술을 받은 경우는 대개 3개월 후부터 가능하다.

허리디스크 환자들은 섹스할 때 허리의 통증이 가능한 한 적은 자세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며, 허리 통증을 과도하게 구부리거나 회전하는 자세는 삼가는 것이 좋다.

척추를 가지런히 하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일반적으로 부부 모두가 허리 통증이 있는 경우는 옆으로 누운 자세가 좋다.

여성이 허리가 아픈 경우는 여성이 바닥에 놓고 무릎을 세워 굽힌 자세를 취하며, 남성이 허리가 아픈 경우는 남성이 바닥에 놓고 무릎은 베개로 받치는 자세가 허리에 큰 무리를 주지 않는다. <광주우리병원 원장>

자동차 견인 보관소 직원들의 불친절에 ‘분통’

주정차 위반으로 견인 조치된 차량을 찾기 위해 광주시 서구 자동차 견인 보관소에 갔다가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했다.

견인되기 전에는 이상이 없었는데 차량 브레이크 이상을 알리는 빨간불이 들어와 견인시 이상이 생긴 것 같아 확인을 요청했는데, 민원인을 대하는 서구 자동차 견인 보관소 직원들의 태도는 불친절했다. 견인 전 보지 못했던 경고등이 들어오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보관소에 확인 및 의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권리 아닌가. 하지만 견인 보관소 직원들은 귀찮다는 듯 불친절한 말투 및 행동으로 대했다. 한

직원은 “말꼬리 잡지 말고, 발등 짙는 소리 하지 마라”면서 자신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려 하는 것이 아니냐며 몰아세웠다.

민약의 사태를 대비해 구청과 피해구제 절차를 물어봤지만 “그런 것 알아서 뭐하냐? 잘 모르겠으니 구청에 전화해 보라”는 등의 성의없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견인된 자동차에 이상이 발생했을 때 책임 여부를 따지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귀찮다는 듯한 서구청 담당 공무원과 서구 자동차 견인 보관소 직원들의 태도는 잘못된 것 같다. ▲불편이·광주시 서구 화정동

Table with 2 columns: Kwangju Ilbo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subscription rates, and publication details.